

참고 6.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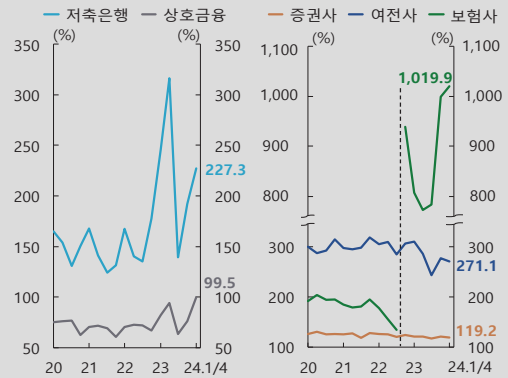
금융시장에서의 높은 금리수준 지속²⁾,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가능성³⁾에 대비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말 기준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현황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4분기에 상승⁴⁾하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은행과의 예금금리 격차가 축소 또는 역전⁵⁾되면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으나 유동성부채 감소⁶⁾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4분기 기준 227.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의 유동성비율은 99.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⁷⁾

증권사와 여전사의 유동성비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⁸⁾하였다. 보험사의 유동성비율은 22년 3/4분기중 134.2%까지 하락하였으나, 2022년말 감독당국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⁹⁾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사의 유동성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참고 6-1).

참고 6-1.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비율¹⁾



주: 1)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혹은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및 시나리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상황에서 예금인출, 채무상환 등으로 단기에 지급이 예상되는 현금유출 예상액(3개월 기준)과 대출 만기도래, 자산매각 등

- 1) 본고는 김민수·이병호·김동녘(시스템리스크팀)이 작성, 이종한(금융시스템분석부장)·최병오(시스템리스크팀장)가 검토하였다.
- 2) 금리(3년만기 국고채 기준)는 2021년 1.39%(연평균)이었으나,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 3.20%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3.57%로 상승하였다.
- 3) 2022년 하반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5>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 4) 저축은행 : 23.4/4 192.1% → 24.1/4 227.3%, 상호금융 : 76.2% → 99.5%
- 5) 저축은행과 은행, 상호금융과 은행의 수신금리(1년 정기예금 및 정기예탁금 기준) 격차는 20년 0.77%p, 0.16%p, 21년 0.85%p, 0.05%p, 22년 0.5%p, -0.04%p, 23.3/4분기에는 0.13%p, -0.05%p로 축소 내지 역전되었다.
- 6) 2022년 4/4분기중 크게 늘어났던 예금 상당 부분의 만기가 2023년 하반기 중에 도래하면서 기존 예금의 중도해지 및 재예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 만기가 늘어나고 유동성부채가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도자료(2024년 3월, 1.2장)를 참조하기 바란다.
- 7) 정부의 상호금융감독규정 및 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으로 금년 말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가 시행될 계획이므로 유동성비율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8) 증권사 : 23.4/4 121.0% → 24.1/4 119.2%, 여전사 : 276.7% → 271.1%
- 9)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으로 한정되었던 보험사의 유동성자산에 '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을 통해 유입가능한 현금확보액(3개월 기준)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금유출예상액(o) 대비 현금확보가능액(i) 비율인 유동성확보비율(lr)을 비은행금융기관 각 업권별로 산출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였다.

$$\begin{aligned} \text{현금확보가능액 } I &= \sum_i A_i(1-l_i) \\ \text{현금유출예상액 } O &= \sum_j L_j r_j \\ \text{유동성확보비율 } lr &= \frac{I}{O} = \frac{\sum_i A_i(1-l_i)}{\sum_j L_j r_j}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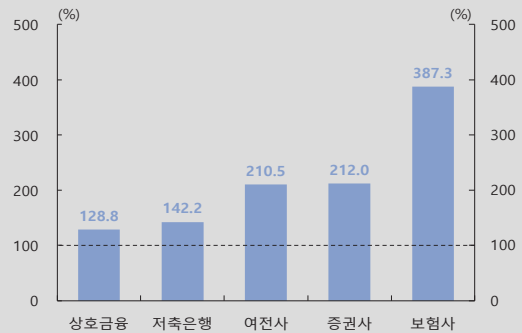
A_i : i 번째 자산, l_i : A_i 의 매각손실률,
 L_j : j 번째 부채, r_j : L_j 의 유출률

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과거 위기시 발생한 예금인출 규모를 적용하여 현금유출예상액을 추정하였다.¹⁰⁾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중 회수가능한 현금을 시산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 한편,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규모를 추정¹¹⁾하여 현금유출예상액을 계산하였고, 보험사의 경우 직전 1년치 지급보험금¹²⁾이 단기에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험사와 증권사의 현금확보가능액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매각시 손실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여전사의 경우는 위기시 자산 유동화 규모를 추정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¹³⁾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비율을 추정한 결과 전 업권이 100% 이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3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권 및 여전사가 각각 212.0%, 210.5%,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이 각각 142.2%, 128.8% 순으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보험 및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시 가용할 수 있는 시장성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여전사의 경우도 카드 자산, 할부금융자산 등 유동화 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확보비율이 20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자산 대부분이 대출채권인 데다 이중 상당부분이 장기로 운용됨에 따라 단기에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증권·보험·여전사에 비해 유동성확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6-2, 6-3).

참고 6-2.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확보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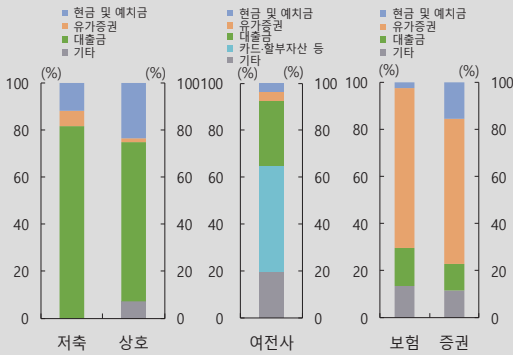
10) 2011년 저축은행 사태시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례를 참고하여 예금 금액대별로 5천만원 이하 예금은 20%,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0%의 유출률을 적용하였다. 다만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여 비조합원 예금에 대해서만 유출률을 적용하였다.

11)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현금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9)를 참고하여 만기도래 채무의 차환율을 65%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12) 과거 유동성 위기 사례가 없었던 보험사의 경우 현행 유동성비율 규제가 3개월치 지급보험금의 유출을 상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가정을 설정하였다. 지급보험금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13) 증권사 및 보험사의 보유자산 매각손실률은 바젤3의 LCR 규제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데이터(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October 2008) 등을 참고하여 자산별로 차등 적용하였다(국공채 0%, 금융채 15%, 주식 20%, 회사채 40% 등). 여전사의 경우 2003년 카드사태시 단기 자산유동화 실적(유동화 대상 자산의 10%)을 참고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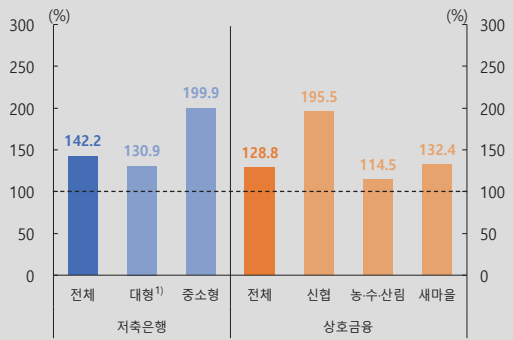
참고 6-3. 비은행금융기관 자산구성¹⁾



주: 1) 2024년 1/4분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각 업권의 세부 기관별 유동성확보비율을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별로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유동성확보 비율(199.9%)이 대형 저축은행(13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은 업권별로 신탁(195.5%), 새마을금고(132.4%), 농·수·산림조합(114.5%) 순으로 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⁴⁾(참고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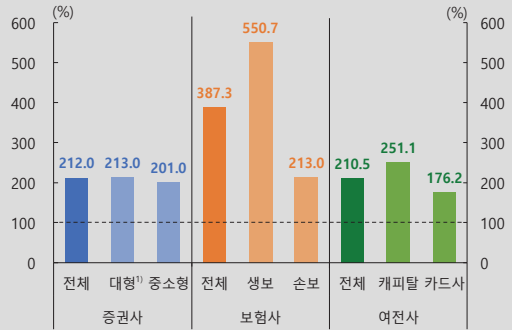
참고 6-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확보비율



주: 1) 자산 1조원 이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

증권사의 경우 현금확보가 용이한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사(종합금융투자사사업자 포함)의 유동성 확보비율이 213.0%로 중소형사(201.0%)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¹⁵⁾ 보험사의 유동성확보비율은 생명보험사가 550.7%로 손해보험사(21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유동화가 용이하고 매각 손실률이 낮은 국공채 및 특수채가 유동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⁶⁾ 여전사의 경우 차환리스크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¹⁷⁾ 캐피탈사의 유동성확보비율이 251.1%로 카드사(17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참고 6-5).

참고 6-5. 증권·보험·여신전문회사 유동성확보비율



주: 1)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포함
자료: 한국은행 시산

14) 예수부채 대비 자산 비중(잔존만기 3개월 이내)을 시산해보면 저축은행 131%, 신탁 103%, 농·수협 및 산림협동조합이 73%로, 농·수협 및 산림협동조합이 타 기관대비 상대적으로 만기불일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형의 예수부채 대비 자산 비중(잔존만기 3개월 이내)이 184.8%로 대형(122.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 대형 증권사의 유동화자산비중은 48.7%,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화자산비중은 35.8%이다.
16) 유동자산중 국공채 및 특수채 비중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35.9%, 손해보험사의 경우 25.3%이다.
17) 캐피탈사의 경우 유동부채 비율이 12.2%로 카드사(1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평가 및 시사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모든 업권에서 현금확보 가능성이 현금유출액을 초과하여 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확보비율이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증권·보험·여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예금취급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운용의 만기불일치가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금년 말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¹⁸⁾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취약부분을 점검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비상 자금 조달계획을 점검하고, 유동성 점검 지표 대상 범위 확대, 정교한 유동성 상황점검 지표 개발 등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또한 금융기관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공여 약정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¹⁹⁾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 및 모형의 정합성 제고 등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정교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18) 정부는 상호금융감독규정, 새마을금고감독기준을 개정하여 유동성비율 규제(3개월 유동성비율 100%이상)를 금년말(새마을금고는 2025년 1월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100% 이상,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유동성 규제 비율을 차등적용하되 1,0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시행 후 1년까지는 90%를 적용할 예정이다.

19) 금융계열사, 타금융기관 등과의 Credit Line(당좌대출약정) 개설을 통해 가용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